尹, 당지도부 총동원…姜, 공동선대위 출범

광주시장 선거 본격 勢싸움

尹, 김한길 대표 광주 유세…지지율 격차 감소 분석

姜, 이용섭 동행 공동 유세 지지표 이탈 막기 총력전

6·4 지방선거를 6일 앞두고 광주시장 선거 막바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와 무소속 강운태 후보 간 세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윤 후보 측은 28일 김한길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의 지원 유세와 함께 300여명의 대학교수 자문단의 지지선언을 통해 세확산에 나섰고, 단일화에 성공한 강 후보 측은 이용섭 후보 측과 이날 단일후보 공동선대위를 출범시키고 공동 유세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윤, 당 지도부 총력 지원=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광주를 방문, 윤 후보와 함께 북구 두암동 일대에서 지원 유세를 벌였다.

김 대표는 앞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한 윤장현 후보를 광주시장으로 세워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윤 후보는 평생 광주를 떠나지 않고 시민과 웃고 울면서 민주화 과정에서 고통도 함께했다"며 "희생과 헌신이라는 광주정신을 제대로 상징할 수 있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윤 후보와 무소속 강운태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선거 막판까지 지지세를 확대하는 등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22~26일 광주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집전화와 휴대전화 RDD(임의번호걸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무소속 강운태 후보가 37.8%를 얻어 윤장현 후보(22.4%)를 15.4% 포인트 앞섰다.

이번 여론조사 최대 허용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7% 포인트다.

또한, 광주지역 일부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광주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RDD 방식 유선 전화면접조사'에서는 강 후보가 윤 후보를 10% 포인트 차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6일 YTN이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와 비교해볼 때 격차가 10%포인트 가량 줄어든 것이다.

◇강, 단일후보 공동선대위 출범=무소속 강운태 후보는 이날 이용섭 후보의 선거캠프와 함께 공동선대위를 출범시키고 공동 유세를 펼치며 세 확대에 총력전을 펼쳤다.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 선관위에 후보 사퇴서를 제출하고 강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뒤 본격적인 '동행 유세'를 벌였다.

이들은 광주시 서구 구동 광주공원 광장과 서구 금호동 풍금사거리 등에서 공동 유세를 이어가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의 부당성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강 후보는 유세에서 "이번 두 사람의 단일화는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단일화였다"면서 "압도적 승리를 거둬 광주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할일 많은 광주, 잘사는 광주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자, 마지막 기회에 시민 여러분이 일 잘하는 강운태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용섭 공동선대위 상임위원장은 "강운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김한길·안철수와 광주의 '신 5적'을 심판하는 것이며, 다시는 낙하산 공천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새정치를 열게 하는 것"이라며 강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강 후보와 이 상임위원장 측은 또 기존 지지자와 지지층이 강운태 후보로의 단일화가 이뤄진 뒤 윤 후보 측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지지층을 흡수위한 노력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 상임위원장 측은 지인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강 후보를 당선시켜 김한길·안철수 체제를 무너뜨리고, 크게는 정개개편도 가능해 이 후보가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28일 자료를 통해 "'무조건 야당 지지와 굴레'에서 벗어나 광주시장부터 인물 중심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강운태 후보 지지를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가 28일 오후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와 함께 지지 기자회견을 위해 광주시의회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강운태 무소속 광주시장 후보와 이용섭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앞 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7명 도전 '3선 벽' 몇명이나 넘을까

6명 새정치연합 공천

7명 모두 박빙 우세

역대 최다 배출 가능성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선출직의 꿈인 3선 연임에 몇 명이나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광주·전남에서 3선 연임에 성공한 단체장은 박준영 전남지사와 유태명 전 광주 동구청장을 비롯해 이석형(함평)·김흥식(장성)·김봉열(영광)·서삼석(무안)·황주홍(강진)·정종득(목포)·이성웅(광양)·김종식(완도) 등 10명이다. 광주에 비해 전남지역에서 3선 연임 성공 사례가 많았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3선 연임에 도전장을 내민 단체장은 광주 1명, 전남 6명 등 모두 7명이다. 광주에서는 북구청장인 송광운 후보가 유일하다. 전남에서는 서기동(구례)·정종해(보성)·박병종(고흥)·김일태(영암)·이명흠(장흥)·정기호(영광) 후보가 3선 연임 도전에 나섰다.

이 중 김일태 후보를 제외한 6명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아 조금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으나 무소속 후보들의 도전이 거세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3선 연임 도전이 만만치 않은 것은 우선 유권자의 피로감 또는 거부감 때문이다. 선거 전문가들은 대부분 유권자가 "두 번 했으면 충분하다"는 심리를 갖는 게 일반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경쟁 후보가 인물론에서 밀리지 않고 참신성을 보여야 유권자의 표심을 얻어 3선을 저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 북구에서는 송광운 후보가 무소속 진선기 후보의 맹추격을 받고 있다. 송 후보는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구를 이끌어 왔다는 평을 받고 있으나 진 후보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새로운 구청장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구례에서는 서기동 현 군수와 전경태 전 군수 간 피 말리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서 후보가 현역과 당 프리미엄을 안고 있지만 다른 무소속 후보들이 서 후보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크고 당 경선에서 패배한 박인환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전 후보 지지를 선언해 막상막하의 판세를 보이고 있다.

영암의 경우 무소속인 현 김일태 군수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전동평 후보와 접전을 펼치고 있다. 김 후보는 현역 프리미엄이 있지만 당내 경선후보 자격심사에서 배제된 약점이 3선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 영광군수인 새정치민주연합 정기호 후보는 김준성 전 영광군의회 의장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무소속인 김 후보는 지난 2008년 영광군수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현 군수에게 쓴 잔을 마신 경험이 있지만 와신상담 표밭을 갈아와 3선 거부감에 시달리고 있는 정 후보와 박빙의 판세를 유지하고 있다.

장흥군수 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명흠 현 군수가 무소속 정종순·김성 후보 등의 추격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은 무소속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남아 있어 승부를 속단하기 이른 상태다.

고흥과 보성에서는 현진 군수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박병종, 정종해 후보가 무소속 송귀근, 이용부 후보의 맹추격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관계자는 "3선 거부감은 여론조사 상 수치로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높은 인지도를 앞세운 현 자치단체장의 여론 지지도 우위가 선거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상당수 지역에서 3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영광군수 선거 '사퇴 댓가' 녹취록 파문

6·4지방선거에 출마한 정기호 현 영광군수 측 관계자와 김준성 무소속 후보 간에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김준성 후보 측은 "(김 후보가)군수 당선 뒤 (정 후보 측에)병원 운영권을 주면 정기호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사퇴하겠다"는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후보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와 정 군수의 친형인 정모씨는 지난 3월 28일 영광읍 S병원 인근에서 만나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 김 후보 측은 "정씨가 김 후보에게 요양병원 위탁 운영권을 (자신들에게)주면 정기호 군수가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는 정기호 군수가 출마를 포기하면, 다른 후보가 출마할 수 있으니 '4월 말까지 후보 신분을 유지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련, 본보는 정씨 측의 정확한 반론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재난현장 소방서장에 경찰·군 지휘권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서장에게 경찰과 군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된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기관을 소방관서(육상)와 해상안전기관(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과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와 해상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평상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또 민간시설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을 의무화하고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7급까지 확대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5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내년부터 7급 공채시험에도 적용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저소득층 배려 선발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급 공채시험에 적용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내년부터 7급 공채까지 확대된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소재 학교 출신이 합격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다.

5급 공채에서는 지방인재가 합격예정인원의 20%에 못 미치면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에서 추가로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안행부는 또 취약계층의 공직진출이 확대되도록 9급 공채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9급 공채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은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으로 늘어난다. /박지경기자 jkpark@